

##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아버지가 조선족인 두 한국 대학생의 경험을 중심으로\*

김 향 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 석사졸업

남 지 은<sup>†</sup>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 조교수


본 연구는 중국에서 탈북 여성 어머니와 조선족 아버지 사이에 태어나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에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두 청년이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중국에서 어떤 문화적 정체성 이야기를 살아왔고, 한국에 들어와서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는 어떠한 문화적 정체성 이야기를 살아내는지 탐구하기 위해 내러티브 탐구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중국에서 부모님과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조선족으로서의 민족 정체성과 중국 사람으로서의 국가 정체성을 동시에 형성하면서 인지적, 신체적 수준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정서적 수준에서는 차이점을 보였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는 한 명은 처음에는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였지만, 나중에는 ‘중국 사람, 서서히 한국 사람으로 물들어 가는 중’으로, 다른 한 명은 처음에는 한국 국적을 ‘있어 보이는 아이템’으로 자랑스럽게 받아들였지만, 나중에는 ‘깎뎠는 한국 사람, 알맹이는 중국 사람’이라는 서로 다른 양상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 모두 북한과 관련하여서는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 이야기의 개인적 정당성, 실제적 정당성, 사회적 정당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문화적 정체성, 제 3문화 아이들, 조선족, 내러티브 탐구

\* 본 연구는 김향화(2022)의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아버지가 조선족인 두 한국 대학생의 경험을 중심으로’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본 연구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연구임(NRF-2020S1A3A2A02103411).

† 교신저자 : 남지은,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조교수,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약학대학 215호. Tel: 02-961-9128, E-mail: jkarin@khu.ac.kr

 Copyright ©2024,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이탈주민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숫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33,88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통일부, 2022).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입국하기 이전까지 이들은 주로 중국, 몽골, 러시아, 베트남 등 제 3국에 거주하는데 이때 일부는 현지주민들과 혼인(대다수 경우 사실혼)하여 자녀를 출산하기도 한다. 이렇게 출생한 아이들을 가리켜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라고 정의하며(최경자 등, 2011), 통일부에서는 이들을 출생지에 따라 ‘제 3국 출생 또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지칭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배경 학생 중에서 북한 출생보다 제 3국(중국 등) 출생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였고 그 숫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23년 4월 기준 북한 출생은 512명(29.8%)인데 반해 제 3국(중국 등) 출생은 1,257명(71.1%)으로 북한 출생보다 2배 이상 더 많았다(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2023).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을 포함하여 진행한 교육부의 『탈북학생 통계조사』에서는 제 3국 출생 탈북청소년 중 98.6%가 중국 출생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 2016).

지금까지 탈북학생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란 경험을 주로 다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을 포함한 제 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연구들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진행해 온 연구들은 주로 이들의 정서, 행동문제와 적응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김윤나, 2014; 노은희, 2021; 도지완, 황명진, 2020; 신현옥 등, 2011; 오인수, 노

은희, 2020; 이원웅, 2012; 이은혜, 2020; 전혜림, 2014).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며, 대한민국 국적법 제 2조에 의하면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 역시도 한국에 오게 되면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 중 한 사람의 국적을 따라 자연스럽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 중 상당수는 10대 중반 전후에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갑자기 주변 환경의 변화를 맞이함과 동시에 출생국의 국적을 버리고 한국인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청소년기 문화적 정체성 확립의 발달적 과업과 함께 이와 관련된 개인의 경험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문은희, 윤영, 2019).

아직까지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 경험을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들이 거의 없었고(조해리, 2015), 그마저도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서 북한 출신을 제외한 부모 중 다른 한 사람의 민족이 다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아버지가 조선족인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중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이라는 다양한 국가와 관련이 있는 동시에 아버지의 민족이 중국 조선족이라는 복합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지녔음을 고려할 때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 이야기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는 이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본 연구는 복잡하고 변화하는 과정으로 정의되는 문화적 정체성 형성을 주제로 한 연구로서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 중에서

도 아버지가 조선족인 자녀들의 삶의 경험에 주목하면서 한국에 온 지 각각 5년, 7년이 지난 20대 초반의 대학생 2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이전과 그 이후의 시간적 연속선에서, 중국과 한국이라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을 통해 구성되는 문화적 정체성을 탐구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내러티브 탐구(Clandinin, 2015)를 선택하였다.

Erikson(1980)에 의하면 자아 정체성(ego-identity)은 자아가 사회적인 현실성에 맞는 자아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며, 인간은 평생에 걸쳐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아 정체성(ego-identity)을 찾아가는 존재이다. 또한 자아 정체성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는 것’(Norton, 2006)이며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되는 다중적이고 유동적인 형성체’이기도 하다(Evans, 2018; 홍영숙, 2021에서 재인용). 최근 들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문화 집단의 일원으로서 인지되는 것과 동시에 개인의 자아정체성의 일부로서 민족 정체성이나 국가 정체성과 같은 문화적인 정체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룰지가 중대한 역사적 과제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Woolfolk, 2015).

우선, 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이라는 용어는 정신분석학자인 Sigmund Freud가 최초로 ‘유대인으로서의 내적정체감(inner identity)’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안하였고 그 이후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지만(양승태, 2010; Kymlicka, 1995; Tajfel et al., 1979; Wodak et al., 1999)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 대한 귀속감과 일체감으로 요약할 수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14). 다음으로, 민족

정체성 역시도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연구되어 왔는데(김가연, 2018; 남순현, 2021; 안현의, 서한나, 2010; 이문철, 2015; Anderson, 1998; Chandra, 2006; Charmaraman & Grossman, 2010), 그 의미를 종합해보면 특정 민족 집단(ethnic group)에 대한 소속감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Branch, 2014). 이처럼 국가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공통적으로 ‘특정 국가나 민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것으로 정의되는 문화적 정체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Valdes, 1986).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정의를 종합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특정 국가나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인식이나 감정’으로 개념화하여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은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인식, 타인을 향한 자기소개와 타인에 의한 명명의 세 순간이 불일치할 때 그 위기가 시작되고, 비록 그것이 위기라고 여겨지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정체성의 위기를 드러내게 된다(Heinich, 2021). 연구 참여자들이 형성하는 문화적 정체성 이야기를 풀어냄에 있어서는 인지적 차원(어떤 국가/민족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정서적 차원(국가/민족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가?), 신체적 차원(국가/민족의 언어, 음식, 전통 등을 이해하고 유지하고 있는가?)등 방면으로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14).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이들이 한국에서 형성한 삶의 경험을 함께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탈북 배경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제 3문화 아이들’이라는 범주 속에서 이들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1950년대 미국 인류학자 Ruth Hill Useem

에 의해 정의된 ‘제 3문화 아이들(The Third Culture Kids)’은 자신들이 태어난 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삶의 경험들을 구성하면서 살아오다가 갑자기 새로운 곳으로 떠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이들은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하면서 문화적 정체성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Pollock & Van Reken, 2008).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어머니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탈북 배경 청소년의 범주에 속하지만(오인수, 노은희, 2020), 이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곳인 중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삶을 살아오다가 갑자기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곳으로 떠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제 3문화 아이들’의 한 범주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3문화 아이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석원(2008)은 정체성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한 ‘제 3문화 아이들’일수록 문화적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고 있고 전 지구적인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세계화 시대에 ‘제 3문화 아이들’의 타문화 경험과 뛰어난 외국어 구사 능력은 큰 강점으로 부각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서나래(2014)는 ‘제 3문화 아이들’의 한 분류에 속하는 한국 화교 3세의 문화적 정체성은 특정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되기도 하고 교실을 구성하는 인종, 교우들과의 관계, 그리고 학교에서의 특별 행사 등을 포함한 교과목 이외의 영향을 받으며 학창 시절 전반에 걸쳐 형성됨을 밝혀냈다. 김영술(2020)의 연구에서는 또 다른 ‘제 3문화 아이들’의 범주에 속하는 국내 거주 고려인들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이들은 혈통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한국 국민으로서의 큰 소속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문화 아이들’의 또 다른 분류로는 재한 조선족 3, 4세대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의 초국적 정체성은 중국 국적을 소유한 국민 정체성, 디아스포라적 관점에서 이중 정체성, 이중 문화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제 3의 정체성’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되었다(임영언, 김한수, 2017). 그리고 Li Dongmei(2021)는 국내 거주 조선족 3세대 청년은 조선족이라는 종족 정체성보다는 중국인이라는 국민 정체성이 더 강했고 조선족의 문화와 생활양식, 한국어 실력에 따라 종족 정체성에 차이가 있으며 한국에서 조선족으로 살면서 대부분 차별을 경험하였음을 밝혀냈다.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을 탈출한 탈북청소년들 역시도 ‘제 3문화 아이들’의 한 범주로 볼 수 있는데 최대석, 조은희(2010)는 남한에서 3년 이상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탈북 대학생들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대해 이들이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반면에 이은혜(2018)는 남한에 온 이후 탈북청소년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핵심 이슈는 이들이 ‘북한 출신’이라는 정체성을 둘러싼 고민과 갈등과 관련 있는 동시에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은 북한과 남한 사이에서의 혼란과 이해의 확장이며 한국에서의 차별 경험에 대한 대응은 ‘침묵’으로부터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임을 밝혀내었다. 조정아(2014)는 탈북청소년들의 정체성 형성은 이들이 북한에서의 생활 경험과 탈북 동기, 그리고 탈북과 남한 사회 정착 과정에서 수많은 경계에 부딪히고 이를 넘어서고 때로는 활용하기도 하는 경계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재구성되는 과정임을 밝혀내었다. 이 부미(2012)에 의하면 북한이탈청소년들은 극적

인 삶의 경험 속에서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남한 사회에 적응하였고,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공간이동에 의한 자기 존재감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문화적 정체성의 변화를 국가 개념보다는 지역적 개념으로 해석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자유롭게 재구성하고 있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제3문화 아이들’은 한국에 온 이후로 서로 다른 양상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같은 문화적 배경에서 온 조선족 3, 4세대나 혹은 탈북청소년이라 할지라도 한국에 와서 형성한 삶의 경험이 다름에 따라 이들이 형성한 문화적 정체성에 있어서도 차이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한국으로 오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들 중 일부는 중국에서 부모 중 한명이 탈북자라는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그 자녀들 역시도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호구를 가지지 못해 ‘무국적’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정규적인 학교 교육을 받기 힘들어 결국에는 브로커를 통해 북한 출신의 부모와 함께 한국행을 선택한다. 또 일부는 북한 출신의 부모가 먼저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 중국에 있는 남은 가족들이 북한 출신의 부모의 부재(가출 등)를 공안에 증명하는 방법을 통해 자녀들로 하여금 합법적인 호구를 취득하게 한 후 여행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오기도 한다(양영자, 2016).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한국에 들어오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간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사회구성원임에 틀림없다(문은희, 윤영, 2019). 하지만 정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탈북청소년들이 받는 정착금 지원, 학력 인정, 특례 입학 전형, 대학 등록금 지원 등을 모두 받을 수가 없으며 중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생활하다가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어라는 새로운 언어 장벽을 넘어야 하고 검정고시 혹은 수능을 통한 대학진학 또한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조해리, 2015).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어린 시절 애착 대상인 어머니와의 분리로 인한 불안정 애착문제로 인해 한국에 와서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거나(도지완, 황명진, 2020; 오인수, 노은희, 2020) 언어와 문화차이로 학교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학교생활에서 소외될 뿐만 아니라 학업문제에 더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등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복합적으로 경험하는(노은희, 2021; 신현옥 등, 2011) 등의 주로 부정적인 심리·정서·행동상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 반면에 일부에서는 아버지가 열악한 환경에 처한 경우라도 그 자녀의 생활만족도가 비교적 높거나(이원웅, 2012) 과거 부모와의 분리를 겪어왔더라도 꾸준히 도전하고 수용하면서 적응하며 자신을 알아가는 기능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다고 밝혀졌다(도지완, 황명진, 2020).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관련하여, 김윤나(2014)와 이은혜(2020)는 이들이 한국에 도착한 이후 중국, 한국, 북한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고 설명하였고 전혜림(2014)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어머니의 지위가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국가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

하였다.

이렇듯 기존 연구들은 주로 중국 출생 북한 이탈주민 자녀들의 심리적 어려움과 그로 인한 행동문제, 그리고 한국 생활에서의 적응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문화적 정체성을 주제로 진행된 경험 연구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그마저도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서 이들의 중국 출신 부모 중 한명이 조선족 또는 타민족일 수도 있는 민족 다양성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점들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아버지가 조선족인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로 연구 참여자의 범위를 특정 지었고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존중하면서 인간 삶을 연구하는 내러티브 탐구방법(Clandinin, 2015)를 통해 이들이 중국에서 어떤 문화적 정체성 이야기를 살아왔고, 한국에서 어떠한 문화적 정체성 이야기를 살아내는지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퍼즐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에 중국에서 형성한 문화적 정체성 이야기는 어떠한가?
- 2)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한국에서 형성하는 문화적 정체성의 이야기는 어떠한가?
- 3) 연구 참여자들이 형성한 문화적 정체성 이야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 방 법

내러티브 탐구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로 시간성을 근간으로 개인의 삶을 조명하며 나아가서 시간성, 사회적 상호작용, 장소/상황이

라는 삼차원의 내러티브 탐구공간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한다(Clandinin, 2015). 그리고 내러티브는 개인 정체성의 표현이자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식(Clandinin & Connelly, 2007)이기도 하며 정체성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를 돕기도 한다(De Costa & Norton, 2016). 본 연구에서의 연구 절차는 ‘연구 퍼즐을 형성하기’, ‘현장에 존재하기’,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 등의 4 단계로 설계, 진행하였다.

### 연구 퍼즐을 형성하기

본 연구는 ‘개별 인간 경험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내러티브 탐구로서 그 목적은 ‘인간 경험 이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연구 결과로서 최종 답(answer)을 제시하지 않고 제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연구 문제(questions)’ 대신에 내러티브 탐구의 구성주의적이고 다중적인 면을 전달하기 위해 ‘연구 퍼즐(puzzl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홍영숙, 2015).

본 연구의 연구자는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2006년에 중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있는 모 대학원으로 유학을 나오게 되면서 지금까지 한국에 살고 있는 귀화 한국인이다. 연구자는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중국에서는 특정 경험이 아닌 거의 모든 일상의 경험으로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모두 당연한 조선족이었고 중국 국민이었다. 중국에서 사는 동안 연구자는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 혹은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 경험해 본 적도, 고민해 본 적도 없었다. 만약 연구자 본인이 한국에 온 이후에도 중국에서 형성한 문화적 정체성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더라면 굳이 ‘문화적 정체성’을 연구의 주제로 선택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언론과 미디어에 노출되는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특정 타인들로부터 편견과 차별들을 경험하면서 연구자는 한국 생활 초기 몇 년 동안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이 부정당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다. 시간이 더 흘러 한국에서 동료들과 친구들, 그리고 의미 있는 타인들과 긍정적인 관계들을 맺으면서 더 이상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조선족 출신의 한국 사람’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적응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연구자 본인의 다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중국과 한국에서 겪었던 문화적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은 본 연구의 첫 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연구자가 시간상으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변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겪고 있던 2016년쯤, 마침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 강사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 인연을 맺게 된, 연구자보다 훨씬 복잡한 문화적 배경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은 과연 어떤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된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연구자의 자서전적 내러티브에서 출발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은 내러티브 탐구자로서 가지게 된 첫 질문이 되었고 본 연구의 연구 퍼즐을 형성하는 첫 출발점이 되었다.

#### 현장에 존재하기(Being in the field)

본 연구자는 수차례 내러티브 탐구 워크샵에 참석하여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연구의 한 가운데로 들어갔고, 동시

에 연구자의 자서전적 내러티브 글쓰기를 반복하고 꾸준히 업데이트 하면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탐구의 현장에 존재하기 시작하였다.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연구자는 본 연구를 기획하기 이전인 과거 2016년 9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에서 한국어와 검정고시 관련 국어, 한국사, 영어 등 교과목들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대안학교에는 아버지가 한족인 학생들이 더 많았지만 아버지가 조선족인 학생들도 여럿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아버지의 민족에 상관없이 대안학교 안에서 너도나도 중국어로만 대화를 하였다.

2021년 8월 문화적 정체성을 주제로 본 연구를 기획하기 시작할 때 연구자는 자연스럽게 과거 대안학교 시절의 학생들을 떠올렸고 이들 중 아버지가 조선족이고 연구 기획 당시에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이가은](가명, 여, 1999년생, 2017년 입국, 대학교 3학년 재학)과 [김주승](가명, 남, 2000년생, 2015년 입국, 대학교 3학년 재학)에게 연락하여 연구 참여 의사를 물어보았고 2명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보였다. 당시에 이 둘은 중국어로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고 심지어 연구자가 한국어로 하는 질문에도 중국어로 대답하였으며 본인들이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에 대해서도 중국어로만 질문을 하고 있었다. 연구자 본인은 조선족 출신으로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이 훨씬 편한 반면에 조선족 아버지를 둔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에서 5년 넘게 살았음에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중국어로만 의사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더 크게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

표 1. 연구 참여자 인적정보

참여자 (가명)	성별	나이	중국 최종학력	한국 입국년도	학력	가족/동거형태
이가은	여	23	고등학교 2학년	2017	대학교 3학년 재학	한국 거주: 어머니, 계부(중국인), 강아지/ 동거 중국 거주: 아버지
김주승	남	22	중학교 1학년 중퇴	2015	대학교 3학년 재학	한국 거주: 아버지, 어머니/ (이혼) 비동거 중국 거주: 친척들

이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Composing Field Text)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연구 자료가 발견된 것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 참여자와 연구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료’라는 용어보다는 ‘현장 텍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한다(Clandinin & Connelly, 2007).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과 파일럿 인터뷰를 진행했던 2021년 12월을 시작으로 2022년 5월까지 연구 참여자 한 명 당 4차례씩 추가로 이루어진 심층 면담 자료를 핵심적인 자료로 사용하였다. 모든 면담 과정은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매 회기 면담 시간은 2시간~2시간 30분으로 진행되어 각자 총 10시간, 1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은 정해진 질문에 묻고 답하는 방식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의 형식으로 풀어가는 데 초점을 두었다. 현장 텍스트 구성 단계에서는 면담 내용을 전사하여 텍스트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연구 참여자인 [이가은]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에는 거의 중국어만 사용했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한국

어가 많이 늘어 면담은 중국어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섞어가면서 하는 게 편하다고 하였다. 두 번째 연구 참여자인 [김주승]은 아직도 중국어가 훨씬 편하다고 대답을 하였고 웃으면서 “중국어로 하면 좋아요. 중국어로 하면 말을 훨씬 많이 할 수 있어요.”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면담 내내 연구자의 폐쇄형 질문에 대한 ‘예’, ‘아니요’와 같은 단답형 답변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대화를 중국어로 표현하였다. 현장 텍스트 전사 과정에서 이중 언어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사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가 어려워 녹음 파일을 듣고 실시간으로 음성을 텍스트로 직접 타자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기본 2시간 면담 자료를 전사하는데 최소 4~5일이라는 시간이 걸려 체력적인 소모로 이어졌지만 연구자가 타인을 통한 번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현장 텍스트를 원문 그대로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큰 장점이었다.

####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Composing Research Text)

연구 텍스트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만드는 단계로 이 과정은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연구자가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Clandinin & Connelly, 2007). 초기 현장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면서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경험들을 찾아내고자 많은 고민을 하였다. 이때 연구자는 연구자 본인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주관적인 해석들이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왜곡하여 해석하지 않도록 하고자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대한 내러티브도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나가면서 연구자 본인과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확실히 분리하는 작업을 이어나갔다.

연구자는 [이가은]의 현장 텍스트 원문 중에서 일부분 중국어로 된 부분은 최대한 [이가은]의 느낌을 살리는 동시에 [이가은]이 한국어로 했던 이야기의 문맥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번역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수정 작업을 거쳐 나갔다. [김주승]은 거의 모든 현장 텍스트가 중국어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구자는 연구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1차적으로 구조화하여 정리한 이후에 중-한 번역 과정을 거쳐 연구 텍스트로 사용할 기본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김주승]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고자 반복하여 읽으면서 대화체로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 연구 텍스트 초안을 완성하였다.

현장 텍스트를 작성하고 연구자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 분석하여 연구 텍스트로 이어지는 과정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텍스트 작성 중에 의문이 들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면담과 별도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메신저나 전화로 잠깐씩 확인 작업을 거쳐 내용을 수정, 보완해 나갔다. 연구 텍스트에 반영

할 현장 텍스트를 선정한 이후에는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해석하고 분석함에 있어서 시간성, 관계성, 장소의 3차원적 공간에서 그들의 경험들이 제대로 재구성되었는지 연구 참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확인 작업을 거쳐 수정해 나갔다.

###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참여자인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개인에 따라서는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자는 사전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생명윤리위원회(IRB)와 연구에 대한 심의”교육을 이수하였다. 참여자들과의 면담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수차례 이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참여자들에 대한 윤리적인 신중성을 우선시하였다. 초기 만남에서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하였다 할지라도 참여 과정에서 심리적인 부담을 느낀다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중도에 인터뷰를 멈출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여 설명하였고 비밀보장을 약속한 이후 동의서를 작성, 서명하여 각자 한 부씩 보관하도록 하였다.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자 두 참여자의 이름은 참여자들에게 요청하여 참여자들이 직접 지은 가명으로 사용하였으며 학교명이나 거주지역, 그리고 가족 및 관련된 사람들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다. 연구 텍스트 작성 과정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거듭된 확인과 동의를 얻어 최종 연구 텍스트에 실었다.

일반적인 윤리적 고려사항 이외에도 내러티

브 탐구에서는 연구자가 참여자의 삶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살고(living), 그들의 이야기를 말하고(telling), 그런 이야기를 다시 말하고(retelling), 다시 사는 (reliving) 현장에 존재하게 되며(Clandinin et al., 2018), 그 과정에서 관계적 존재론의 바탕적 근원이 되는 관계적 윤리를 강조한다(홍영숙, 2019).

연구를 시작하면서 연구자는 과거 대안학교 근무 당시 연구 참여자들과 서로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신분적 차이가 자칫 위계적인 분위기를 가져 오지 않도록 주도적인 위치가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연구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 함께 있어주는 동시에 적절한 상황에서 연구자의 자기 개방도 하면서 관계적 윤리에서의 ‘반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면담을 진행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이 편한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에 의해 얻어진 현장 텍스트를 연구자가 번역한 부분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해석하고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도 연구 참여자들에게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연구에 드러내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모두 중국어와 한국어 이중 언어로 소통이 원활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 결 과

[이가은(가명)]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관한 내러티브

### 중국에서의 이야기 1: 당연한 중국 조선족 - 아빠와 엄마로부터

[이가은]은 1999년 중국 길림성 근처에 있는 한 조선족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유치원을 다닐 때까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배다른 언니와 함께 살았다. [이가은]의 어머니는 북한 출신으로 중국어를 할 줄 몰랐다. 어머니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들은 모두 조선족으로 조선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가은]의 어머니가 사용하던 북한말과 조선어는 억양과 사용법이 상당히 비슷하여 상호 소통이 가능했기에 어린 [이가은]도 집에서 자연스럽게 조선어를 사용했고 중국어는 할 줄 몰랐다.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전부 중국어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왜 재네들은 조선말 안 하나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때 아빠가 알려줬던 것 같아요... (중략)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아버지한테 물어봤고, 아버지는 저 글씨는 한자이고 저들은 중국어를 한다고 알려줬어요. 우리는 조선족이기 때문에 조선어를 먼저 배우고, 나중에 중국어를 배운다고 하셨어요.” (2022. 02. 14, 1차 면담)

[이가은]은 5살 때쯤 처음으로 중국어로 된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자신이 알아듣지 못하는 중국어라는 새로운 언어를 접하게 되었고 자신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에 대해 의문이 생겼다. 아이는 신체적 자아와 부모에 대한 관념이 문화적 함의와 결합되는 시기에 정체감이 처음으로 나타나는데(Erikson, 1968), [이가은]의 금금증은 주 양육자 중 한 명인 아버지의 가르

침을 통해 해소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이가은]은 아버지와 자신의 민족이 조선족이라는 관념이 조선어라는 문화적 함의와 결합되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도 조선족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처음으로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새벽 그때 한번 진짜 기억나는 게 새벽이었어요. 제가 자고 있는데 엄마가 저를 깨워 가지고, 깨워 가지고 제가 잔 상태에서 저를 막 묶어요. 이불로, 옷으로, 옷으로 막 묶어가지고 앞에는 고모부 있고 중간은 제가 끼었어요...(중략) 기억나는 게 제가 자다가 깬 거든요? 자다가 깨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호호호(웃음), 오토바이에서도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이미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중략) 진짜 웃긴 게 저녁에 분명히 집에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고모집이에요. 호호호호(웃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위험한데 그때는 그게 재밌었어요.” (2022. 02. 14, 1차 면담)

[이가은]은 어머니가 탈북자였기 때문에 종종 주변의 고발로 인해 다른 도시에 사는 고모부네 집으로 피신을 다녔던 일화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자칫 공안에 붙잡히면 어머니가 강제 복송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어린 [이가은]은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 아예 몰랐다. 하지만 비슷한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어머니가 위험해서 잡혀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고 [이가은]은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었다.

“아빠는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너는

아빠 딸이고 아빠는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너도 중국 사람이다.’ ... (중략)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안 잡혀 가냐고 물어봤거든요. 아빠는 ‘너는 아빠 딸인데 누가 널 잡아갈 수 있어?’라고 말씀하셨어요.” (2022. 02. 14, 1차 면담)

아버지로부터 자신은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 합법적으로 호구부에 중국 사람으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안심을 하게 되었고 동시에 인지적으로 자신은 중국 사람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가은]의 아버지는 [이가은]이 초등학교에 다니기 전까지 어머니도 조선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가은]은 어머니를 조선족으로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탈북자라는 사실은 [이가은]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쯤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일하러 갔다가 두 달 뒤에 돌아온다고 약속하고 한국으로 떠났지만 결국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로 한동안 [이가은]은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어머니를 원망하였고 아버지에게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다고 회상하였다. 몇 년이 지나서 어머니가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나서 어쩌다 한번씩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연락을 이어나갔지만 그때도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고 서로 안부를 주고받거나 생활 상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화만 나눴다.

## 중국에서의 이야기 2: 자부심을 느끼는 중국 사람 - 학교와 주변으로부터

“저는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는 중국에서 사는 게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조선족이면서 중국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조선어도 중국말인줄 알았지만 크고 나서는 조선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전통문화 같은 것도 배우긴 했지만 크게 기억에 남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도 조선족의 전통 명절 쇠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가 연변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2022. 02. 14, 1차 면담)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이지만 어린 시절 [이가은]이 살았던 마을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아니었다. 마을에는 조선족들이 많지 않아 조선족 전통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적었고 마을 주민들 상당수가 나이 많은 어르신들뿐이었기 때문에 많은 소통을 하지 않았다.

“학교 교문을 입구에 보면 큰 글씨로 주소 같은 게 적혀있고, 그 뒤에는 ‘\*\*조선족학교’라고 적혀있어요...초등학교 때부터 중국어를 더 많이 했어요. 그 후로 중학교에 가서부터는 조선어는 거의 하지 않았구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랬던 것 같아요. 교과서에도 중국어 나오니깐 당연히 교과서는 정확할 거 같아요. 제가 중국어를 많이 하는 것도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빠도 제가 중국말 잘한다고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어렸을 때 중국어를 할 줄 모르면 밖에서 길을 잃어도 집을 못 찾아가는데, 이젠 중국어를 할 수 있다고 아빠가 엄청 기뻐하셨거든요.” (2022. 02. 14, 1차 면담)

학령기가 되자 [이가은]은 조선족 학교에 입학했다. 학교 선생님들은 조선족이었지만 정작 조선어문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교과목은 중국어로 된 교재를 사용하여 중국어로 강의를 진행하였고 조선족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다. 학교를 벗어나서도 주변에는 한족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중국어를 사용하는 빈도는 늘어나고 조선어는 집이나 학교 조선어문 수업에서만 사용하였다.

[이가은]은 인지적으로 자신이 조선족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형성한 동시에 중국 사람이라는 국가 정체성 또한 꾸준히 형성해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학교에서 배우는 중국의 사회와 역사 교육을 통해 자신을 단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인지적인 수준을 넘어 중국에 대한 애국심을 키우는 등의 정서적 수준으로까지 국가 정체성을 형성해 가고 있었다. 이런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이가은]은 조선족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정서적으로는 조선족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을 강하게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형성된 문화적 정체성으로 인해 자신을 조선족으로 인지하고는 있었다.

### 한국에서의 이야기 1: 한국 국적을, 싫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

“저는 한국 국적을 받는 게 싫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래서 중국 여권 여행비자로 계속 한국에 있었는데... (중략) 부모 중에 한 명이 대한민국 사람이면 저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되고 영주권은 줄 수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약간, 그러니까 많이 고민했어요. 처음에는 약간 한국 국적을 가지면

중국 국적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따로 가진다는 게 싫었어요.” (2022. 03. 08, 2차 면담)

[이가은]은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던 차에 한국에 살고 있던 어머니의 제안으로 한국 유학을 결심하였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나온 이후 이곳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려면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이가은]이 처음 느꼈던 감정은 ‘싫다’였다. 한국에 온 지 며칠도 안 된 [이가은]에게 있어 한국은 단지 헤어진 지 오래된 어머니가 살고 있는 낯선 곳일 뿐이었다. 어머니를 제외한 가족과 친구들이 전부 중국에 있었고 여태까지 자신의 모든 삶의 이야기가 중국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가은]에게 중국은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자 ‘우리나라’였다. 하지만 갑자기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17년 동안 형성해 온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중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뭔가 잃어버린 느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허전함과 상실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가은]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을 하면서 결국에는 국적을 바꾸는 선택을 하였고 한국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렇게 [이가은]이 한국 국적을 선택한 것은 앞으로 살아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해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자신의 진로만을 위해 지극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내린 결정일 뿐이었다. 중국에서 대학 입시 경쟁 때문에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태어나서 자랐던 고국이라 더 좋고 중국

국적을 포기하는 게 싫었다. 행여 나중에 중국으로 가고 싶을 때 입국 금지라도 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되었지만 여행 비자를 발급받으면 갈 수 있다는 아버지의 말이 그나마 조금의 위로가 되어주었다.

## 한국에서의 이야기 2: 강요와 갈등 속에서 위기를 경험하다

국적을 바꾸고 며칠이 지나자 [이가은]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위한 미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하여 대학교 입학의 목표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가은]은 최대한 현실에 적응하려고 마음을 다잡고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조선족으로서 중국에서 한글과 조선어에 대한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로 된 교재를 이해하는데 금방 적응할 수 있었고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부터는 조선어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타 조선족들과는 다르게 조선족 특유의 억양도 남아있지 않아 표준 한국어 발음으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이 가능했다.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대안학교 선생님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고,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이가은]은 비록 아직은 싫더라도 한국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자신에게 강요하였다.

“그때 대안학교 때, 회장님이 자주 오거든요. 그 회장님이 계속 oo이랑 oo? oo랑 oo랑한테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자주 물어봤어요. 한 명은 대답을 못했고 다른 애는 내놓고 ‘중국 사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회장님이 ‘아니지! 한국 국적이면 한국 사람이지!’ 하

면서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장이 너무 싫었어요. 그때는. 약간 물어볼 때도, 물어볼 때도 약간 뭔가 대답은 정해져 있다, 대답만 말해라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본 것 같아요.” (2022. 03. 08, 2차 면담)

[이가은]은 한국 사람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자 자신에게 강요하면서 갈등 속에서도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었지만 막상 주변에서 선부르게 친구들한테 한국 사람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하려고 강요하는 모습을 보면 강한 거부감을 느꼈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가은]이 중국에서 형성한 중국 사람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은 포기하겠다고 해서 쉽게 포기가 되는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가은]은 타인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자 하였다.

십여 년의 시간동안 어머니와 떨어져 지냈던 [이가은]은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재회한 어머니와 함께 하는 낯선 생활에 적응하기도 전에 한국에서 함께 할 새로운 가족으로 새 아버지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중국에서 친 아버지와 사이가 유독 돈독했던 [이가은]에게 새 아버지라는 존재는 전혀 반갑지도 달갑지도 않게 다가왔다. 게다가 함께 지내면서 보게 된 새아버지의 모습은 전혀 긍정적이지도 않았고 책임감도 없었다. [이가은]의 새 아버지는 한국에 온 지 20년이 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출신인데 웬지 모르게 자주 중국에 대해 험담을 하였고 그 모습을 보자 [이가은]은 화가 많이 났었다. [이가은]이 현실적인 선택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더라도 아직까지는 마음속으로 중국을 소중하게 생각

하고 있었고, 자신이 과거에 형성한 중국 사람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가은]은 한국에서 새롭게 구성된 가족들과의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선생님들과 어울리는 일이 편하고 즐거웠다는 것이다.

### 한국에서의 이야기 3: 중국 사람, 조금씩 한국 사람으로 물들어가는 중

[이가은]은 대안학교에 다닐 때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 중국 상하이로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다. 그때 [이가은]은 중국 현지에서 능숙하게 중국어를 구사하였고 같이 봉사를 갔던 한국 친구들은 그런 모습을 부러워했다. [이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중 언어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자신이 중국 사람이었다는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포기가 아닌 애착과 자부심을 키우게 하였다. 그러다가 종종 다른 사람들로부터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요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자신이 중국 사람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느끼게 되었다. 그 시절의 [이가은]에게 한국 국적은 단지 하나의 ‘껍데기’일 뿐,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은 국적과 일맥상통하지 않았다.

“중국은 조선족이라는 민족에 대해 무시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자주 다문화, 다문화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외국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중국은 달라요. 외국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중국 조선족이라고 이야기해요. 비록 엄청 오래전에 조선족은 중국 사람이 아니었지만 신 중국 성립

이후로 몇 년 동안 중국 내의 모든 소수 민족들을 분류하고 신 중국 성립 이후 그 이전 국적이 어디였는지를 불문하고 그때부터는 중국 사람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저는 이런 방식이 좋다고 봐요... 부부가 이혼을 하고 나서 재혼을 했다고 하면 그 이전 배우자와는 아무상관 없잖아요? 조선족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족은 이제 중국 사람이고, 한국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한 가족일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과거만 따질 수 없어요... 근데 중국 조선족은 이제 자랑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고 있는 조선족도 몇 없구요. 아빠도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조선족은 중국에 살고 있을 뿐이죠.” (2022. 05. 04, 4차 면담)

2번의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가은]은 한국에 온 이후 조선족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 궁금증이 생긴 연구자는 [이가은]에게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이가은]은 여전히 조선족을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중국에서 살 때에도 정서적으로 조선족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을 강하게 형성하지 않은데다가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딱히 조선족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다 보니 중국에서 형성했던 조선족으로서의 인지적, 정서적인 민족 정체성은 약화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예전에는 싫었어요. 북한이 싫었고 창피하다고 생각했어요. 북한이탈주민 자녀 아니야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자녀라고 하면 바로 비하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뭐라고 하려면 뭐라고 하라고 해요. 그들이 우리를 비하하는 건 그 사람들 안목이 낮기 때문이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호호호. 북한은 단지 엄마 고향, 엄마를 태어나게 해주고 그냥 엄마가 예전에 생활했던 곳이에요. 왜 거기 가보지도 못했고, 오직 들어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별로 안 좋다고 들었어요. 소문도 안 좋구요.” (2022. 05. 04, 4차 면담)

조선족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대해 질문을 마치고 연구자가 [이가은]에게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불리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이가은]은 한국에 와서 초기에 어머니로부터 한국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을 비하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자신이 북한이탈주민 자녀라고 불리는 사실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가은]이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밝혔음에도 차별이 아닌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자녀라고 불리는 사실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렇다고 [이가은]이 북한과 관련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한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단지 어머니의 고향일 뿐, 자신과는 아무런 접점이 없을 뿐더러 북한과 관련된 어떤 문화적 정체성도 형성하지 않았고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불리고는 있지만 정작 [이가은]이 스스로 형성한 문화적 정체성은 북한과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 하였다.

“지금은 중국 조선족보다는 그냥 중국 사람, 한국 사람으로 끝! 북한 사람은 상상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단어예요... (중략)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으니 저는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엄마가 또 한국에 왔으니까 서류상에서는 절반 중국, 절반 한국이죠. 예전 같으면 한국은 남의 나라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가면서 약간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 말이 점점 익숙해져요. 그리고 예전에는 선거에도 별 흥미가 없었고 나랑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선거는 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약간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마 한국에, 여기 와서, 시간이 오래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해 감정도 점점 더 깊어지고,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런다고 딱히 구분을 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한국에서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에 대해서 정이 더 많아진 것은 맞는 것 같아요.” (2022. 05. 04, 4차 면담)

[이가은]은 스스로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대해서는 굳이 양자택일이 아닌, 중국 사람인 동시에 한국 사람이라는 이중 정체성으로 구성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인지적) 받아들이고(정서적) 있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과거에는 중국 사람이지만 지금은 조금씩 한국 사람으로 물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었다. 북한과 관련된 문화적 정체성은 거의 형성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 중국에서 형성했던 조선족으로서의 민족 정체성 또한 약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 사람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은 정서적인 수준에서 여전히 많은 부분을 간직한 동시에 한국 사람으로서

의 인지적, 정서적으로 문화적 정체성을 서서히 키워가고 있었다. 이렇게 [이가은]은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정체성 변화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 [김주승(가명)]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관한 내러티브

##### 중국에서의 이야기 1: 당연한 중국 조선족 - 아빠와 엄마로부터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길림성 그쪽이었어요. 무슨 촌이었던 것 같은데, 버스를 타면 외진 길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주변도 거의 농촌이었어요. 그리고 조선족들만 살았어요. 거의 조선족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마을은 전부 조선족들이 많았어요. 한족은 몇 명 없었던 것 같아요.” (2022. 02. 15, 1차 면담)

[김주승]은 2000년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한 조선족 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머니가 탈북자였지만 누구도 이런 사실을 이야기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 [김주승]은 어머니의 정확한 신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조선족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김주승]은 호구부에 중국 조선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가정에서 부모님과 대화는 주로 조선어로만 이뤄졌고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도 주로 조선어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김주승]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조선족으로 인지하는 동시에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중국 조선족으로서의 인지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김주승]이 유치원에 다닐 때쯤, 부모님은



[김주승]의 교육을 위해 조금 더 큰 도시인 왕청현에 있는 유치원에 등록을 시켰다. 그때쯤 [김주승]의 아버지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출국했고 [김주승]은 태어난 마을을 떠나 왕청현으로 이사해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어머니와 둘이 살았다. [김주승]은 당시에 어머니가 왕청현에 있는 한 조선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주방에서 냉면 기술사로 취직했다가 나중에는 주방장으로 승진했다고 웃으면서 회상하였다. 어린 [김주승]은 어머니를 사랑하였고, 어머니와의 사이도 꽤 좋았던 것으로 보였다.

“북한에서 온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데 엄마는 도망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숨었어요. 식당에 있을 때에는 사모님도 도와주시고, 식당에도 여러 차례 붙잡으러 왔어요, 그때마다 숨었어요.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엄마가 위험할 뻔했죠. 그땐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엄마 붙잡으러 오지도 몰랐어요. (중략) 아마 중국에서 어릴 때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크고 나서 알았어요.” (2022. 02. 15, 1차 면담)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할 때 식당을 떠나서 며칠 동안 다른 곳으로 가서 머무르다가 돌아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지만 공안의 단속을 피해 숨는다는 사실은 몰랐다. [김주승]의 어머니는 [김주승]이 초등학교 3학년을 다닐 때 한국으로 떠났고 [김주승]은 초등학교 5학년이 지나서야 어머니가 탈북자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북한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은 [김주승]이 나중에 한국에 와서 어머니를 만난 이후에야 조금씩 들은 게 전부였기 때문에 [김주승]도 [이가은]과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탈북자라는 신분은 중국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 중국에서의 이야기 2: 당연한 중국 사람 - 학교와 친척, 주변으로부터

“1, 2학년 때에는 제가 중국어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3, 4학년 이후로는 거의 중국어만 했어요. 중국어를 제일 많이 했어요. 조선어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의 중국어만 했어요. 아마 TV를 보는 것과 관련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중국 채널만 보니까요. 영화라든가 모두 중국 글자로 나오고, 어린이 프로그램도 중국어로 하고, 그런 것과 상관있는 게 아닐까요? TV를 보면 전부 중국 글자, 그리고 친구들이랑도 평소에 중국어로 대화를 해요. 저는 학교 친구들과 거의 중국어로만 대화했어요.” (2022. 02. 15, 1차 면담)

[김주승]은 왕청현에서 조선족 유치원, 조선족 초등학교와 조선족 중학교를 차례로 다녔다. 학교 선생님들은 거의 모두 조선족이었고 중국어나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은 모두 조선어로 진행되었지만 막상 학교에서 친구들과 가는 중국어로만 대화를 했다. 부모님과 함께 살 때에는 집에서 주로 조선어로 대화를 하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김주승]은 중국어와 조선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다. 게다가 [김주승]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 국민이었고 학교에 다니면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많아지면서 인지적, 신체적으로 중국 사람으로서의 국가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형성

해 나갔다. [김주승]은 초등학교 때 중국에서는 조선족들만 한복을 입고 한족들은 한복을 입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일상생활에서 중국어를 많이 사용했지만 학교에서 문자는 주로 한글을 썼고, 수업 시간에도 조선어를 하는 등의 일상에서 조선족으로서의 인지적, 신체적 정체성도 유지해 나갔다.

[김주승]이 학교에 다니던 시절 이사를 갔던 왕청현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속해있는 도시였지만 김주승이 살던 동네에는 조선족보다 한족이 더 많았다. [김주승]은 한족들과 어울려 중국어와 조선어를 섞어 사용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으며 소수자로서의 차별 경험은 거의 전무했다고 회상하였다. 어머니가 한국으로 떠나자 [김주승]은 1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숙모네 집에 위탁되어 살게 되었다. [김주승]의 숙모는 한족이었고 조선어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때부터 [김주승]은 자연스럽게 집에서 중국어만 하게 되었고 그 전에 자주 먹지 않았던 튀스편, 중국식 짜장면, 휘귀 등의 중국 음식도 자주 먹게 되었다.

중국에서 살아온 여러 경험들은 [김주승]으로 하여금 조선족으로서의 인지적, 신체적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중국 사람으로서의 인지적, 신체적 정체성도 동시에 형성해 나가게 하였다. [김주승] 역시도 처음에는 집에서 조선어만 하다가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더 자주 사용하였고 나중에는 한족 숙모네 집에서 머물게 되면서 정서적인 측면에서까지 조선족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강하게 형성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중국 사회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

았기 때문에 애국심을 깊게 느끼거나 하는 정서적으로 중국 사람으로서의 국가 정체성 역시도 강하게 형성하지는 않았다.

### 한국에서의 이야기 1: 한국 국적, ‘있어 보이는 아이템’

“다른 친구들은 국적을 어떻게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험도 안보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집에 있었는데 국적이 바뀌었어요. 엄마가 알려줬어요. 저는 이제 한국 국적이라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는데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엄마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게 있었나 봐요. 그거랑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막 와서 한 2, 3주쯤 지났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때쯤 국적을 바꿔놨어요. 집에 있는데 엄마가 알려줬어요. 아무 느낌 없었어요... 중국에 있을 때 친구들이 한국 아이돌을 엄청 좋아했어요. 제가 한국에 유학을 간다고 하니깐 애들이 엄청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한국 국적을 제가 딱 취득을 하고 나니깐 친구들한테 막 자랑했고, 또 친구 녀석들이 막 부럽다고 난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져서 흐뭇했어요.” (2022. 03. 04, 2차 면담)

[김주승]은 한국에 와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가 단독으로 신청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한국에 오기 직전 [김주승]은 중국에서 막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한창 사춘기를 맞아 공부는 뒤로 한 채 친구들과 무리지어 다니는 반항아로 살고 있었다.

[김주승]과 친구들은 온라인에서 한류의 중심에 서있는 한국의 아이들에 환호하고 있었고 이런 [김주승]에게 새롭게 부여된 한국 국적은 친구들한테는 없는 자신만의 소유로 '있어 보이는 아이'와도 같은 자랑거리였다. 며칠 동안 친구들과 자랑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김주승]은 다문화 학교에 입학하였다.

당시 [김주승]이 다녔던 다문화 학교에는 러시아, 필리핀,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 출신 학생들만 다니고 있었고 수업은 주로 한국 선생님들이 기초 한국어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김주승]은 중국에서 조선족 학교를 다니면서 조선어를 꾸준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문화 학교에서 기초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이런 경험은 주승이로 하여금 다른 외국인 친구들에 비해 훨씬 빠른 시간 안에 한국어 능력시험 5급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좋은 성적을 받아 학교에서 인정을 받았고 이런 사실로 인해 어머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자 주승이도 기분이 좋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다.

#### 한국에서의 이야기 2: 상처받고 후회하다

한국어 능력시험 5급을 취득하고 나서 선생님들의 권유로 [김주승]은 일반 중학교에 편입하였다. 한국에서 정규적인 학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한국의 교육과정은 [김주승]에게 너무 어렵게 다가왔다. 다문화 학교를 다닐 때에는 다른 외국인 학생들에 비해 한국어를 잘하는 편이었지만 일반 학교에서 처음 만나게 된 한국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유창하지 못한 한국어 실력이 [김주승]의 자신감을 하락시키는 주요인

으로 작용하였고 거기에 내향적인 성격은 새로운 환경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한국 친구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저해하였다. 결국 [김주승]은 일반 학교를 그만두고 원래 다녔던 다문화 학교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다문화 학교로 돌아가자 학교에서의 생활은 예전처럼 즐거웠지만 한국에 와서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와 함께 한 새로운 가정에서의 생활은 어머니가 한국에 와서 재혼한 새 남편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처음 왔을 때에는 맘 편한 날이 없었어요. 엄마 그 전남편이라는 사람이 너무 너무 너무 짜증났거든요. 밤중에 새벽에 집 아래에서 큰소리치고, 술 먹고 뿔 누르고, 그래서 엄마는 그 사람 몰래 집을 내놓고 혼자 집 나가고...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사람이 또 찾아냈어요. 그리고 밤에 와서 문 두드리고, 그래서 또 이사를 했는데, 바로 지금 사는 이 집이에요. 여기 이사 와서 또 그 사람이랑 같이 꽤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엄마가 정말 참기 힘들다고 이혼 신청했고, 그 사람이 폭력을 행사해서 엄마가 접근금지 신청하고 나서 그 사람이 다시는 못 왔어요.” (2022. 03. 04, 2차 면담)

당시 [김주승]은 집에 돌아오면 폭력과 폭언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과 마주해야 했고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그러한 공포를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만 했다. 안전확보가 우선이었던 상황 속에서 [김주승]은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도, 정체성 형성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 볼 겨를조차 없었다. [김주승]

은 15년 동안 중국에서 살면서 인지적, 신체적으로 조선족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자신의 삶에 큰 생체기를 남긴 어머니의 전남편이 조선족이었다는 이유로 조선족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 다행히 폭력과 폭언을 일삼던 어머니의 전남편은 법의 조치에 따라 이혼이 성사되었고 한국을 떠나게 됨으로써 [김주승]과 어머니는 드디어 그 골레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야 [김주승]은 비로소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다문화 학교에서 중학교 졸업장을 취득하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인가 대안학교>를 소개받아 거기에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정하였다.

“저는 저도 군대를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대안학교로 가고 나서야 저도 군대를 가야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느낌ियो? 그때는 엄마랑 같이 후회했어요. 엄마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늦게 국적을 바꿀 걸 했어요. 그때 제 느낌은, 아... 그땐 처음에는 별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후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군대에서 안 좋은 일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나서 점점 싫었어요. 점점...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선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동기들 중에 군대 갔다 온 학생들이 그 선임들한테 어떻게 해코지 당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밤에 코를 골았다고 깨웠다느니 했어요. 아무튼...

음... 그들이 얘기하기를 다 안 좋대요. 주요하게는 선임들이, 먼저 군대 왔다고 선배랍시고, 그 선배들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2022. 03. 04, 2차 면담)

[김주승]은 한국에 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고 대안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군대를 가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잘 알아보지도 않고 국적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여 한국 국민으로서 인지적, 정서적으로 문화적 정체성을 단단하게 형성한 한국 사람들도 군복무는 의무인 동시에 자신의 청춘을 바쳐야만 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관련하여 아직 그 어떤 문화적 정체성도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현실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연구자는 상상이 되지 않았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진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밖에 나가서 중국어로 말을 하는 게 두려워요... 그 이전까지는 밖에서 중국어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대중교통을 타거나 할 때에도 중국어를 못하겠어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집에서 핸드폰으로 봤는데, 댓글들이 거의 다 중국을 욕하고 있었어요. 허허! 중국에 대해 엄청 심한 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더 확실하게 느꼈던 건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중략) 그 형이 자기는 중국을 너무 싫어한다고 말하더라구요. 코로나도 중국에서 시작된 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그리

고 얼마 전에 TV랑 뉴스를 보면 대통령 후보까지도 나서서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중국을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엇그제 이틀 전에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옆에 같이 일하는 두 사람이 또 중국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 올림픽도 그렇고, 방송 보는데 댓글들이 전부 중국을 욕하고 있었어요. 이러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중국을 싫어하는지 확신할 수 있어요.” (2022. 03. 12, 3차 면담)

[김주승]은 그동안 한국 곳곳에 존재하는 반중 정서를 느끼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김주승]이 자신을 아직도 중국 사람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주승]이 중국에서 형성한 조선족, 그리고 중국 사람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은 명명, 소개, 자기 인식의 세 순간이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한국 언론이나 몇몇 유튜버 등에 의한 명명이 중국에 대한 비난과 혐오로 받아들여졌고 반대로 그런 경험을 할수록 [김주승]은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정서적인 애착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런 사회적 관계에 의해 구성되는 [김주승]의 문화적 정체성 역시도 위기를 맞이하였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개강 첫날에도 [김주승]은 자신이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여 중국 사람이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학교에서 왕따라도 당할까봐 두려웠다. 아직까지 중국 사람들을 더 편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들을 많이 불편해하고 있었다. 이런 느낌은 [김주승]이 대학 생활에서 친구들한테 먼저 다가가지 못하도록 초기 교우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처음에는

두렵고 불편했더라도 막상 나서야 할 상황이 생기거나 한국 친구들이 먼저 다가오면 회피하지는 않았다. 첫 수업 때 자기소개 시간에 많이 떨렸지만 당당하게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잘 마쳤다. 실습 수업 때에는 같은 팀에 속한 두 명으로부터 잘 지내보자는 연락을 먼저 받으면서 그들의 말에 용기를 내어 친구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대학교에서 친구를 사귀 경험은 [김주승]이 대학 생활에 적응함에 있어서 처음에 느꼈던 불편함과 두려움을 없애주고 평범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친구 두 명을 사귀 경험만으로는 [김주승]이 한국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었다. 여전히 낮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불편하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한국 사람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다.

### 한국에서의 이야기 3: 껍데기는 한국 사람, 알맹이는 중국 사람

“호구부에도 올라가 있으니 당연히 중국 조선족이죠. 제 마음속으로는 조선족이에요. 그 다음은 중국 사람, 그 다음은 한국 사람. 북한은 거의 없어요.” (2022. 05. 06, 4차 면담)

[김주승]은 자신을 중국 조선족, 혹은 중국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고 자신의 정체성 또한 중국에서 중국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한때는 조선족이었던 어머니의 전남편의 영향으로 정서적으로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잠깐 생기기도 했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나자 [김주승]이

기존에 형성했던 조선족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의 변화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저를) 중국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나아요. 탈북 자녀라고 부르는 게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 안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불쌍하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남들이 봤을 때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2022. 05. 06, 4차 면담)

[김주승]은 대안학교에 다닐 때에야 처음으로 자신을 ‘북한이탈주민 자녀’라고 소개하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은연중에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 불쌍하게 생각하거나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북한 출신이라고 밝히는 것이 싫었다. 이러한 느낌은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었다.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김주승]은 오직 북한 출신인 어머니가 상처받을까봐 마음이 쓰였다. 또한 자신은 북한과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자녀’라고 불리는 사실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제가 중국에서 태어났고, 북한은...그냥 엄마가 거기서 살다가 왔다 정도? 응? 그러면 저는 절반이 북한사람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얘길 하니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드네요...하하, 그럼 저도 절반 북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2022. 05. 06, 4차 면담)

연구자가 [김주승]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대해 어머니의 북한출신이라는 신분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자 [김주승]은 의아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에 관련된 정체성 형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웃으면서 이야기 하였다. [김주승]의 모든 삶의 경험은 중국과 한국에서만 형성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북한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에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고, 자신과 북한이 그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김주승]은 자신이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인지적으로는 한국 사람임을 동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 마음속으로 중국 편을 들게 되고 올림픽에서도 중국 팀만을 응원하는 ‘껍데기만 한국 사람, 알맹이는 중국 사람’의 모습이었다.

“중국에서 살다가 왔고, 그래서 중국에 마음이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욕할 때마다 한국이 싫어지고, 점점 더 싫어져요.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들이 중국에 대해 뭐라 하면 더 싫어지고 해요. 자꾸만 중국에 대해 안 좋은 얘기들만 해요. 저는 아직 중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일부는 아마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은 중국에 있고 제 주변에도 전부 중국어만 하는 사람들이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제가 좋아하고 싶다고 좋아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그렇게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영상이나 소셜 같은 건 아직도 중국 꺼 많이 봐요. 게임

도... 아? 지금은 중국 게임을 잘 안하네요. 아무튼 저랑 연관된 거의 대부분은 중국과 관련 있는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중국 음식을 더 좋아하구요. 보거나, 즐기거나 하는 것들은 중국 꺼 더 좋아해요. 이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2022. 05. 06, 4차 면담)

[김주승]은 정서적, 신체적으로 중국 사람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감정은 자신이 바꾸고 싶다고 바뀌어 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정일 뿐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문화적 정체성은 주변 환경과 삶의 경험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지 누군가에 의해 부여받는다라고 바로 변화 가능한 건 아니라는 뜻이었다. 특히 부정적인 관계적 경험이 누적 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는 더 이루기 힘들었다. 앞으로 한국에서 취직을 하거나 가정을 이뤄 살면서 긍정적인 경험들이 쌓이더라도 [김주승]은 중국 사람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였다. 시간이 흘러도 자신이 중국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한국 사람인 척하는 중국 사람’으로 살 것 같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는 등의 경험들이 꾸준히 누적이 되면 한국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한국 사람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 또한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하였다.

##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북한이탈주민 어머

니와 중국 조선족 아버지 사이에 태어나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두 청년이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 중국에서의 경험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한 심층 면담을 통해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과정을 내러티브 탐구로 알아보았다. 2021년 12월에 파일럿 인터뷰를 시작으로 그 후 2022년 2월~2022년 5월 까지 각자 4차례 추가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고 소요된 시간은 각각 10시간, 11시간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알아본 결과 두 연구 참여자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경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님의 영향과 주변 환경(학교, 마을사람/친척들)의 영향으로 조선족으로서의 민족 정체성과 중국 사람으로서의 국가 정체성을 동시에 형성하였다. 인지적인 수준에서는 자신들을 당연하게 중국 조선족으로 인지하고 있는 동시에 중국 국민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신체적인 측면에서도 이중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특별히 민족 문화적인 전통에 대한 체험이 없이도 한족과 조선족들과 두루 어울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등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서적인 수준에서 [이가은]은 학교에서 중국 역사와 사회에 대한 교육을 통해 중국에 대한 애국심과 자부심을 키워가는 등의 정서적 정체성을 강하게 형성해 나갔으나 [김주승]은 사춘기를 겪으면서 학교 교육과정을 소홀히 하는 대신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두면서 중국 사람으로서 정서적으로 자부심을 강하게 느끼지는 않았다는 점은 두 참여자가 중국에서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가장 다른 부분으로, 이는 중국 학교에서의 정규 교육과정 참여도의 차이가 두

연구 참여자의 정서적인 문화적 정체성 형성 수준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한국에 와서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관련된 경험들을 살펴보면 두 연구 참여자 모두 주체적인 동시에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변화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관계 형성 경험이 다름에 따라 한 명은 ‘중국 사람, 서서히 한국 사람으로 물들어 가는 중’으로, 다른 한 명은 ‘깍뎀기는 한국 사람, 알맹이는 중국 사람’이라는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은]은 처음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중국 국적이 사라진다는 사실에 상실감과 혼란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앞날을 위해 ‘싫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종종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기를 강요받는 경험을 통해 거부감을 강하게 느꼈다. 특히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새 아버지가 자주 중국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으로 중국에 대한 애착의 감정을 더 크게 느꼈다. [이가은]이 중국에서 형성한 중국 사람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은 타인에 의한 명명, 타인을 향한 소개, 자신을 향한 자기 인식의 세 순간이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적(Heinich, 2021)이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에는 대안학교에 종종 오시는 회장님이나 새 아버지 등에 의한 문화적 정체성의 명명이 ‘중국에 대한 비난’과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강요’로 느껴졌지만 [이가은]이 자신을 향한 인식은 ‘자랑스러운 중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 의해 구성되는 [이가은]의 문화적 정체성 역시도 위기를 맞이했고 혼란을 초래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는 시

간이 길어질수록 학교 선생님들과 대학교 친구들을 포함한 한국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경험들을 통해 스스로 한국 사람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대해 인지적인 수용을 넘어 정서적 수용으로 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서서히 한국 사람으로서 물들어가고 있었다. 한국 사람으로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은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분히 상승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렇듯 현재 [이가은]은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수준에서 한국 사람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과 중국 사람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동시에 형성해나가고 있으며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은 약화되었다. 미래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대해 [이가은]은 중국 사람으로서의 인지적, 정서적 정체성은 조금씩 약화하면서 한국 사람으로서의 인지적, 정서적 정체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주승]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 처음에는 ‘있어 보이는 아이템’을 획득한 것처럼 멋진 일이라고 친구들한테 자랑하였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예민해진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험담을 하는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본인 또한 중국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수용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서 한국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커졌다. 이는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는 국가 간의 관계 맺음 속에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김영술, 2021)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주승]은 중국 사람으로서의 정서적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깍뎀기만 한국 사람, 알맹이는 중국 사람’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동시에 조선족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 또한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김주승]은 중국 사람으



로서의 정서적 정체성은 그대로 간직한 채 ‘한국 사람인 척 하는 중국 사람’으로 쪽 살아갈 것이라 예상했지만 긍정적인 관계의 경험들이 누적되는 동시에 한국에서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자신도 한국 사람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 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지위는 두 연구 참여자의 과거와 현재 북한과 관련한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 참여자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머니가 한국으로 떠나 그 이후의 성장 과정에 함께 하지 못했다. 그나마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살 때에도 어머니의 탈북자 신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했고 오히려 어머니를 조선족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중국에서 조선족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 와서 어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어머니는 이미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단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나라일 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 본 적도 없었다. 이들의 어머니의 현재 신분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도 어머니의 국적을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서 한국 사람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스스로를 북한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감정도 없고 그 어떤 문화적 정체성도 형성하지 않았다고 표현하였다.

## 논 의

Clandinin(2015)는 내러티브 탐구가 경험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연구방법으로서 내러티브 탐구자는 “So what?”, “Who cares?”라는 연구의 정당성과 목적을 묻는 질문에 답함으로써 연구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내러티브 탐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에 대해 개인적 정당성(personal justification), 실제적 정당성(practical justification), 사회적 정당성(social justification) 등을 제시하였다(Clandinin, 2015: 홍영숙, 2019에서 재인용). 이러한 세 가지 정당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 및 제언한다.

### 개인적 정당성

연구 참여자들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을 주제로 한 본 연구는 어쩌면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연구자 본인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과 관련하여서도 인생 한 단락의 종지부를 찍는 의미 있는 시간인 동시에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과정이었다. 연구자는 연구를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연구자 본인의 내러티브를 작성하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업데이트 해나가면서 중국에서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이 없었던 과거와 한국에 와서 몇 년 동안 겪었던 문화적 정체성 위기의 경험을 회상하고, 그러한 위기를 긍정적인 관계 경험들을 통해 극복해 나갔음을 성찰하면서 다문화 상담사로서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를 마주할 때 어떤 자세로 다가갈지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첫 번째 연구 참여자인 [이가은] 역시도 중국에서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이 없었던 과거를 떠올려 보고, 한국에 온 이후 초기에는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혼란과 상실의 감정을 느꼈지만 그 이후에는 긍정적인 관계 경험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지 5년이 지나자 한국과 중국에 모두 소속되어 있음을 느끼며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미래의 자신이 한국에서 어떤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모습도 그려볼 수 있었다. 두 번째 연구 참여자인 [김주승]도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형성했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되돌아보고, 한국에 와서 자신이 형성하기 시작한 문화적 정체성의 첫 출발은 한국 사람이 된다는 자랑스러움이었지만 그 이후의 여러 경험들 속에서 한국에 온지 7년이 지나자 오히려 ‘깝테기만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자신의 생존전략으로 삼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동시에 한국에서의 긍정적인 경험들이 누적이 된다면 보다 적응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래의 긍정적인 모습도 그려보았다. 이렇듯 연구자와 참여자 모두 새로운 문화적 환경 속에서 과거와는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에서 역동적으로 살아온 자신을 마주하면서 한 단계 성장한 자신을 만나게 되었다.

### 실제적 정당성

다문화 상담은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일상에서의 과제 해결과 사고, 감정 및 행동적인 측면에서 인간적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이장호, 2005)이라는 일반 상담의 개념에 더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문화 적응 유형을 가진 내담자를 만나 ‘상담자가 자신과 내담자의 서로 다른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고,

그것을 상담의 전 과정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임은미 등, 2018). 하지만 타문화를 경험한 적이 거의 없는 상담자의 경우 문화로 인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일반적인 시선에서 해석하는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김영경, 김현아, 2009). 이러한 이유로 다문화 상담 현장에서 상담사들은 우리 사회가 부여한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의 단순한 레이블링이 주는 착각이나 오해, 선입견 등을 과감히 버리고 내담자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입국 시기, 그리고 부모의 문화적 정체성 등에 대해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노력을 통해 내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진솔한 이해’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북한이탈주민 자녀’라는 일반적인 범주에서 벗어나 ‘제 3문화 아이들’의 범주 속에서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측면의 실제적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제 3문화 아이들’의 범주 속에서 특정 국가 정체성이나 민족 정체성을 넘어 초국가적 정체성(transnational identity)을 고려하는 동시에 이들의 문화 혼종성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서나래, 2014). 다양하고 독특한 이주배경을 지닌 내담자들은 문화적 정체성 혼란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노은희, 2021). 본 연구의 두 참여자 역시도 자신들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에서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였고 그로 인해 서로 다른 양상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가은]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내적 갈등과 혼란을, [김주승]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난 이후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하였다. 이는 입국 초기의 [이가은]과 한국에 온지 7년

이나 지난 [김주승]이 한국에서의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가 심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통제감이 적을 가능성이 높은 것(Nam et al., 2018)으로도 해석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한국에 와서 문화적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교에 합격하였고 대학교 입학 이후에는 좋은 친구관계를 쌓아가면서 만족스러운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등의 적응적인 모습들도 보여 주었으며 이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과 보호요인 중에는 한국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맺게 되는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경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담자들이 문화적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부정적인 정서들을 경험하고 있었더라도 이들은 충분히 '성장에 대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 또한 수용할 수 있는 상담가의 인식 또한 중요할 것이다(조진희, 정문경, 2020).

### 사회적 정당성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의 실태에 대해 되돌아봐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동시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내담자들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을 어떻게 바라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다루고자 하였다.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서 우리나라 성인들의 다문화수용성 점수는 52.27점으로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고 나타났다(이남철, 2022).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에 있어서 특히 20대는 대체적으로 선진국 문화에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세계화에 대한 균형감이나 이해도는 현

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황정미 등, 2007: 남순현, 2012에서 재인용). 황규호와 양영자(2008)는 한국의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다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서는 우선 타 문화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의 사례들을 확인하고 이러한 편견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었는데 본 연구는 이런 시사점과 맥을 함께 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인 [이가은]은 주변 사람들로 부터 종종 한국 사람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을 강요당함을 느끼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에 대해 지나친 동화주의만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대해 성찰하고 그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형성한 문화적 정체성이 '북한이탈주민'보다는 '중국출생'이라는 부분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에 관심을 가지고 해당 키워드를 통해 본 연구를 접한 일부 독자들은 이 결과를 당황스럽고 의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북한이탈주민 자녀'라는 사실보다는 이들이 중국에서 태어나서 생활하다가 청소년기에 한국에 입국한 경험이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훨씬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런 연구 결과는 연구 참여자들이 그동

안 ‘중국 출생’보다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라는 부분이 더 강조되어 온 현상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북한과 관련된 과거의 경험들을 거의 공유하지 않았고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을 ‘남의 나라’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크게 궁금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자는 면담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지 않아 연구 참여자들이 북한과 관련하여 정체성을 형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아있다. 또한 가령 이들의 어머니가 자신들이 북한을 탈출했던 과정을 포함한 북한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직접 해줬다면 본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 지에 대한 의문점 또한 남아있어 추후 확장 연구를 통해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여 심층 면담자료를 풍부하게 하여 밝혀내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일반화된 결과의 탐색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두 연구 참여자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살아내는지 탐구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독특한 경험을 이해하는 데 그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로 모든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대해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은 향후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주제로 양적연구 혹은 혼합 연구를 통한 기초자료의 축적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내담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담 기법과 관련된 전문적인 제언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다문화 상담

현장에서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 더 나아가서 문화적 혼종성을 지닌 내담자들을 마주할 때 상담사로서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들이 문화적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동시에, 그로부터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내담자들의 건강한 자기 이해 및 통합에 기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14). 민족과 탈민족의 경계를 넘는 코리언. 서울: 도서출판 선인
- 국회예산정책처 (2016).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 김가연 (2018). 내러티브 탐구를 통한 한국어 학습자의 정체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석원 (2008). 「제 3문화 아이들(TCK)」의 정체성 분석과 교육적 대안 탐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김영경, 김현아 (2009). 새터민 동료상담자의 상담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981-1009.
- 김영술 (2020). 국내 거주 고려인의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 형성과 변화 연구. 재외한인연구, 51.
- 김영술 (2021). 국내 거주 북미한인의 민족 정체성 및 국가 정체성 형성과 변화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 문화교류연구), 10(3), 31-64.

- 김윤나 (2014). 제 3 국 출생 비보호 탈북청소년의 인권 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7(3), 21-39.
- 남순현 (2012). 한국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4), 949-980.
- 남순현 (2021). 중국인인가? 유학생인가? 중국 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전략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2), 745-770.
- 노은희 (2021). 심리상담 전문가의 탈북 배경 청소년 상담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도지완, 황명진 (2020). 제 3국 출생 북한이탈 청소년의 가족경험 변화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사회과학연구*, 31(1), 169-190.
- 문은희, 윤영 (2019).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한국어 학습 동기에 관한 연구-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4(-), 79-120.
- 서나래 (2014) 한국 화교의 문화 혼종성 교육 경험과 정체성 형성: 국제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6(3), 53-82.
- 신현옥, 허수경, 이슬기, 김미라 (2011). 제 3 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기초조사 연구. 서울: 무지개청소년센터.
- 안현의, 서한나 (2010). 한국인 대학생의 민족 정체성이 주관적 안녕감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3), 1037-1052.
- 양승태 (2010).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국가 정체성 문제에 대한 정치철학적 성찰.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양영자 (2016). '제 3 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문제: 문헌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0), 167-190.
- 오인수, 노은희 (2020). 제 3 국 출생 북한이탈 주민 자녀의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맥락적 이해 및 개입전략. *교육학연구*, 58(1), 1-32.
- 이남철 (2022). 청소년들은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성인들은 왜?. *이주와 통합*, 18, 20-23.
- 이문철 (2015). 민족 정체성에 대한 학문적 인지와 타자의 시선. *한국학연구*, 38(0), 513-535.
- 이부미 (2012).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습경험 및 정체성 재구성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인류학연구*, 15(2), 23-57.
- 이원웅 (2012).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이은혜 (2018). 두 탈북청소년의 학교교육 경험과 정체성 변화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은혜 (2020). 제 3 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한국 입국 경험과 진로 준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이장호 (2005). *상담심리학*. 박영사(제4판).
- 임영언(Yim Young Eon), 김한수(Kim Han Soo) (2017). 디아스포라의 초국적 정체성과 다양성에 관한 고찰. *한국과 국제사회*, 1(2), 109-128.
- 임은미, 강혜정, 구자경 (2018). 일반 상담역량, 다문화 상담역량, 사회정의 옹호상담역량의 구조적 관계 및 잠재집단 탐색. *상담학연구*, 19(5), 209-232.
- 전혜림 (2014). 제 3 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남한사회적응.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 학교 대학원.
- 조정아 (2014). 탈북청소년의 경계 경험과 정체성, *현대북한연구* 17(1), 101-155.
- 조진희, 정문경 (2020). 관계상실을 경험한 중년여성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3), 1225-1261.
- 조해리 (2015). 제 3 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국가 정체성: 다문화 교육에의 함의.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대석, 조은희 (2010). 탈북대학생들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14(2), 215-240.
- 최경자, 곽종문, 채경희, 박찬수 (2011). 제3 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무연고 탈북 청소년의 학교적응 실태. *연구총서*, 2011(0), 1-193.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2023). *탈북학생 현황*. <https://www.hub4u.or.kr/main.do>
- 통일부 (2022). *북한이탈주민 정책*.
- 한국청소년개발원 (2014). *청소년 심리학*. 교육과학사.
- 홍영숙 (2015).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이해.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3(1), 5-21.
- 홍영숙 (2019). '관계적 탐구'로서의 내러티브 탐구. *질적탐구*, 5(1), 81-107.
- 홍영숙 (2021). 캐나다의 한국계 이민가정 청년의 언어정체성 형성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질적탐구*, 7(3), 43-72.
- 황규호, 양영자 (2008). 한국 다문화교육 내용 선정의 쟁점과 과제. *교육과정연구*, 26(2), 57-85.
-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19-2), 2-229.
- Anderson, B. (1998). *The spectre of comparisons: Nationalism, Southeast Asia, and the world*. Verso.
- Branch, A. J. (2014). Ethnic identity exploration in education promotes African American male student achievement. *Journal of African American Males in Education (JAAME)*, 5(1), 97-104.
- Charmaraman, L., & Grossman, J. M. (2010). Importance of race and ethnicity: An exploration of Asian, Black, Latino, and multiracial adolescent identity.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6(2), 144-151.
- Chandra, K. (2006). What is ethnic identity and does it matter?.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9, 397-424.
- Clandinin, D. J. (2015). *내러티브탐구의 이해와 실천 [Engaging in narrative inquiry]*. (염지숙, 강현석, 박세원, 조덕주, 조인숙, 역). 파주: 교육과학사. (원본 출판 2013년).
- Clandinin, D. J., Caine, V., & Lessard, S. (2018). *The relational ethics of narrative inquiry*. New York, NY: Routledge.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7). *내러티브 탐구 [Narrative inquiry]*. (소경희, 강현석, 조덕주, 박민정, 역). 서울: 교육과학사. (원본 출판 2000년).
- De Costa, P., & Norton, B. (2016). Identity in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Research agendas for the future. *The Routledge Handbook of Language and Identity*, 586-601.
- Erikson, E. H. (1968). The life cycle: Epigenesis of identity. *Identity: Youth and crisis* (pp. 91-197).

- W. W. Norton & Company.
- Erikson, E. H. (1980). *Identity and the life cycle*. W. W. Norton & Company.
- Evans, D. (2018). Language and identity: A theoretical perspective. In D. Evans (Ed.), *Language, identity and symbolic culture* (pp. 1-2). England: Bloomsbury.
- Heinich, N. (2021). 정체성이 아닌 것 [Ce que n'est pas l'identité]. (임지영, 역). 서울: 산지니. (원본 출판 2013년).
- Kymlicka, W.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Clarendon Press.
- Li Dongmei. (2021). 조선족 3세대 청년의 종족 정체성에 관한 한중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 Nam, J. K., Nam, J. S., & Kim, D. (2018). Cultural Homeless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Young Cross-Cultural Individuals. *교육심리연구*, 32(3), 571-596.
- Norton, B. (2006). Identity: Second language. *Encyclopedia of Language & Linguistics*, 5, 502-508.
- Pollock, D. C., & Van Reken, R. E. (2008). 제3 문화 아이들 (박주영, 역). 서울: 비즈앤비즈. (원본 출판 2001년).
- Tajfel, H., Turner, J. C., Austin, W. G., & Worchel, S.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Organizational Identity: A Reader*, 56(65).
- Valdes, J. M. (1986). *Culture bound: Bridging the cultural gap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dak, R., De Cillia, R., & Reisigl, M. (1999). The discursive construction of national identities. *Discourse and Society*, 10(2), 149-173.
- Woolfolk, A. (2015). 교육심리학 - 제 12판 [Educational psychology, 12]. (김아영, 안도희, 양명희, 이미순, 임성택, 장형심, 역). 서울: 박학사. (원본 출판 2012년).

원 고 접 수 일 : 2023. 04. 04

수정원고접수일 : 2023. 11. 27

게재결정일 : 2023. 12. 20

**A Narrative Inquiry on the Formation of Cultural Identities  
of North Korean Defector Children Born in China: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Two Korean University  
Students with Korean-Chinese Fathers**

**Hyang-hwa Kim**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

**JeeEun Karin Nam**

Kyung Hee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This study utilized narrative inquiry to explore the cultural identities of two young adults born in China to North Korean defector mothers and Korean-Chinese fathers. It scrutinized the transformation of their identity narratives before and after their move to Korea, following their acquisition of Korean citizenship, and throughout their university education. The findings indicated that, while in China, both individuals identified ethnically as Korean-Chinese and nationally as Chinese due to parental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They showed similar cognitive and physical identity aspects, but varied emotionally. Upon acquiring Korean citizenship, one participant experienced an identity crisis but later considered themselves both Chinese and Korean. The other initially viewed their new nationality as a 'prized item,' yet ultimately felt 'Korean on the surface, Chinese at heart.' Neither participant formed any cultural identity related to North Korea. The study discussed the personal, practical, and social justifications for their cultural identity formation.

*Key words : North Korean Defector Children Born in China, Cultural Identity, Third Culture Kids, Korean-Chinese, Narrative Inquiry*